
어깨동무 어린이집 소식지는 여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작은 쉼터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2호 1995. 7. 21

어깨동무 소리새



판화: 이옥련(김종민. 종현 어머니)

어/깨/동/무/어/린/이/(전화:8/3/3/-7/3/2/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1동 618-42 영1복지관내

소리새 무릉도수



어깨동무 소리새

매일 매일을 생활에
쫓겨 여유없이 살아
가는 우리네들의 삶에
자그마한 쉼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소리새'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짜임새

1. 꿈이 더 필요한 세상 (시감상)
2.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어린이집 원장)
3. 민석아! 소풍 또 가자 (정소미/김민석 어머니)
4. 병식씨, 사랑해요 (이석자/진규, 수정 어머니)
5. 유아를 위한 문자교육에 관하여 (이영애/방송통신대학교 조교)
6. 옛날이 그리워, 하지만... (송희전/자모회 총무)
7. 좋은 아버지 20계명
8. '자녀 성교육'강좌를 듣고 나서 (김미희/정호진 어머니)
9. 슈퍼우먼 여재문씨 댁을 찾아서 (편집부)
10. 여름에 잘 걸리는 식중독 (김철환/가정의학과 전문의)
11. 예쁜 조카들이 생겼어요 (김은아/영미회 회원)
12. '소리새'가 권하는 좋은 그림책
13.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안상억/이윤정 어머니)
14. 우리들 세상 (아이들 작품 감상)
15. 어깨동무 소식

꿈이 더 필요한 세상

이땅에 누런 금덩이들은
모두 예쁜 구슬을 만들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다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교과서들은
모두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하늘 가까운 학교 옥상에서
다 날리게 하자

백원짜리 동전보다는
꿈이 더 필요한 세상에게 하고

일류대학 졸업장보다는
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어린이집 원장)

어깨동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깨동무에 부임한 원장 김명숙입니다.

부모에게는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는 보호, 교육받을 권리를 주는 보육시설 어깨동무가 문을 연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어깨동무는 여러 시행 착오들을 겪으면서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없이는 제대로 된 아동 교육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모회가 만들어 졌고, 어깨동무 가족들간의 생각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소리새가 발간되었습니다.

교사들 또한 주1회의 교사회의와 교육회의를 통해 질 높은 아동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동무에 부임한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토대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민석아! 소풍 또 가자

정소미 (민석어머니)

“소풍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아?” 쉰 예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네”

이 말은 새벽같이 일어나 구멍뚫은 만들고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늦은새라 민석이 손을 잡고 잡을 나서는 우리 모자를 향해 예 아버지가 려친 말이다.

정말 왜 그렇게 소풍이 기다려졌을까?

아줌마라 여쭙 수 없는데 소리를 듣기 싫어 회사에는 그저 앉아서 있어서 하고만 일해왔다.

아이와 처음 가는 소풍이 얼마나 설렘이 있었나.

자칭 “엄마 나 호자야” 하는 우리 민석이의 학창한 봄날 놀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1995년 5월 11일 드디어 나와 민석이는 가슴 설렘하며 기다리던 첫 소풍의 길에 올랐다.

떨어지기 싫어 울며 보채는 아이와 버스를 달리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 엄마들은 오래전만에 학생으로 되돌아 간 듯 원샷 선생님의 진행에 맞춰 재미있게 놀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새벽에 그 옷들을 열며 준비했던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농장을 견학하고 엄마들은 다른 어린이집 엄마들과 모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키스 게임에서는 머릿도 굴려보고 음원현과 노래처럼 시전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우리편 이기기도 열심히 응원도 했다.

아이들 소풍을 핑계로 엄마들이 아이들보다 더 신났었던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며 놀 수 있도록 보채는 아이들을 돌보시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느꼈다.

몸은 지치고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엄마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라며 마지막 한 마리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석아 엄마랑 내년에도 또 소풍가자”



병식씨, 사랑해요.

이 석 자 (전부 수정이 어머니)

모든 것이 초록빛이고 조금은 더운 칠월에 나는 직장 선배 언니의 소개로 늙름하고 멋있는 임병식 중사를 만났다. 땀에 젖은 그의 푸른 제복은 나의 가슴을 너무도 설레이게 했다. 항상 나를 어린 아이같이 포근하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그를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다.

병식씨를 만나고 몇 달 후 내가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병식씨가 그 날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을 하려고 직장으로 전화했다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취방으로 찾아왔다. 부대에서 내 자취하는 집까지 좀 먼 거리였음에도 병식씨는 마다지 않고 약까지 사들고 와서 내가 빨리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과 정말 내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날 병식씨는 부대로 돌아가는 차가 끝겨 공원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부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게 사랑을 키워 오던 우리들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다. 병식씨와 내가 사키는 것을 아시게된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얼마가 반대하시는 이유는 “궁합이 안 맞으니 헤어져라!” 라는 한 한가지였다. 절정의 말이 무엇인데 심만 점점이 말만 믿고 그렇게 팔뚝하릴까. 그 때만큼 심마가 야속하게 생각되었던 적이 없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창 밖에는 활짝눈이 하얗없이 내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줄 알았다. 나오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유리창만 바라보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병식씨를 쳐다 보았다. 아! 그런데 두눈을 감은 병식씨의 두 뺨에도 붉은 눈물이 하얗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

다음 날 병식씨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님 결연로 가라. 나는 제대해서 산으로 들어갈란다.” 라는 말을 남기고 부대로 돌아갔다.

그 후 나는 내내 앓다가 시골집에 내려가 쉬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실을 해도 항상 무언가 허전했고 그가 너무도 보고 싶어졌다. 그가 정말 산에 들어갔는지 궁금했다.

1 해 여름 휴가. 나는 엄마에게는 서울 친구집에 놀러간다고 하고선 1의 부대로 여행을 갔다. 1권에 세상에, 심병식 증서로 15일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가고 없다고 하였다. 1 번질을 달려 왔는데 1월계 허탈할 수가 없었다. 어쩔까 망설이다 어렵게 1의 고향집에 전화를 했다.

아주 어렵게 우리 다시 만났다. 오래만에 만났음에도 어색하지 않았고 우리 곧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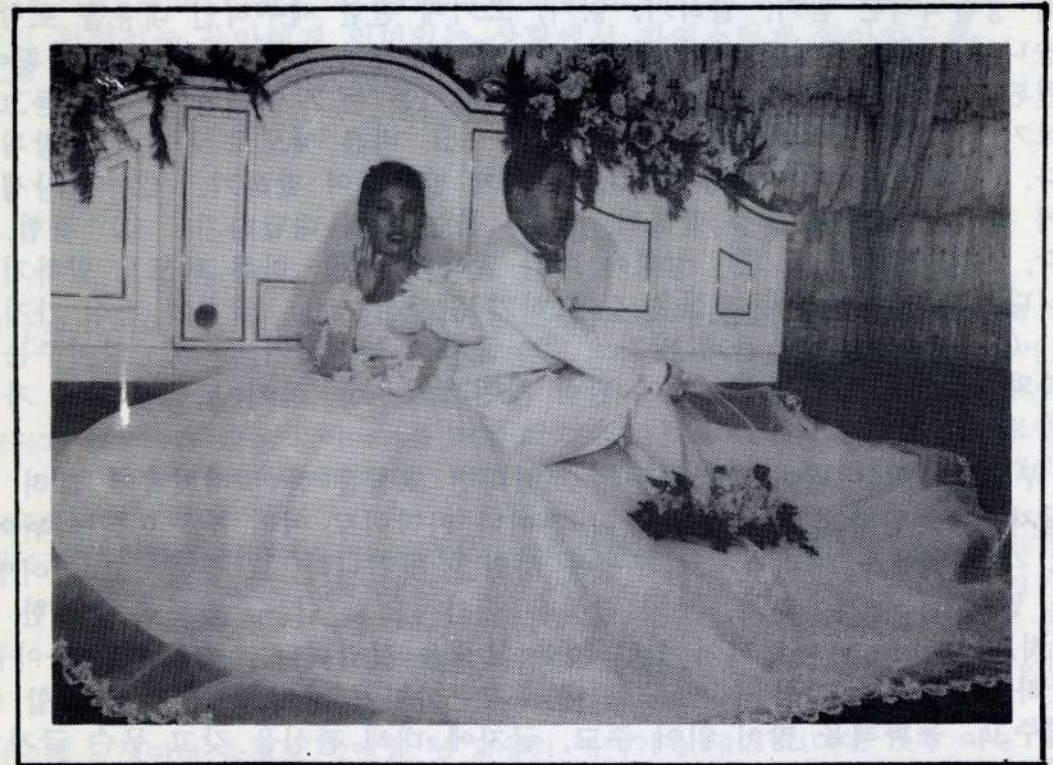
1 후로 1가 시간이 있으면 이리로 내려 오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경기도 파주까지 여행을 가면서 사랑을 더욱 돈독히 했다. 1권 중 우리는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내어 화족을 밝히게 되었다.

1권에 막상 결혼해 보니 근신의 아내는 혼자 있는 날이 너무 많아서 항상 기다리는 날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어쩔 때는 열흘도 안됐다. 비가 오는 날이나 고양이가 울고가는 날에는 왜 1월계 무서웠는지 그 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

병식씨는 92년도에 제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지금은 제과점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연애했을 때 그 마음같이 우리 남편 병식씨를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나의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고 싶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실망드리지 않는 1권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이다.



유아를 위한 문자교육에 관하여

이영애 (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인간의 언어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적 기술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아들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는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통합적으로 발달해 갑니다.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은 말하기, 듣기 활동과 동시에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문자교육을 위해서는 이 네가지 영역에 대한 올바른 환경조성과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생활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의 문자지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유아를 위해 문자를 지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어 생활역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듣기를 위한 활동으로 ① 말소리 듣기, ②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이해하기, ③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④ 듣고 따르기, ⑤ 동화와 동시 즐겨듣기, ⑥ 바른 태도로 듣기이 포함됩니다. 말하기를 위한 내용은 ①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②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말하기, ③ 묻는 말에 대답하기 ④ 경험, 생각, 느낌 말하기, ⑤ 상황에 따라 말하기, ⑥ 바른 태도로 말하기입니다. 읽고,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① 글자에 관심 가지기, ② 말과 글과의 관계 알기, ③ 글자로 놀이하기, ④ 읽어주는 동화와 동시 즐기기, ⑤ 책에 관심 가지기, ⑥ 쓰기 도구에 관심 가지기 등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셨다면 교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국민학교 교실과는 달리 장이나 칸막이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각 벽면에도 여러가지로 구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유아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이가 종이 등을 달라고 할 때 꺼내주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 주고, 글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슨 글자인지 물어 보면 귀찮아 하지 말고 대답을 해 준다면, 유아들이 글자를 익히고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들은 아이들마다 그 차이는 있지만 보통 4, 5세 경에 글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도 간판이나 어떤 글자가 보이거나 동화책을 보다가 혹은 과자봉지에 씌여진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물어 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유아들이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글자를 배울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되면 유아들의 관심은 글자를 익히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님이 협력해서 글자를 지도한다면 아이는 쉽게 글자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유아가 글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면 간단한 글자를 스스로 익히게 되고 간단한 문자의 구조를 나름대로 체계화시킵니다.

강압적으로 배운 글자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지만 유아 스스로 익힌 글자나 문자의 구조는 지속되고 확고합니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문자지도는 유아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스스로 글자를 익힐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읽고 쓰는 것은 인간이 살아 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읽고 쓰기를 배우는 과정이 유아에게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문자를 읽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의미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

- 읽기 발달 -

- 1단계 : 아이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림을 보고 꾸며가며 이야기하고, 별생각없이 책의 글자를 손으로 가르키며 읽으며, 그림이 없는 장은 책 넘겨버립니다.
- 2단계 : 책마다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나 아직도 그림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는 매번 실제 이야기와 비슷하게 읽습니다.
- 3단계 : 글자가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되고, 정확히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특정한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림은 글자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면 실제 단어나 구절을 많이 포함해 읽고, 읽어주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글자만 있는 장에서도 멈추며, 제목이나 큰 글씨들에 특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 4단계 : 책마다 특정한 단어로 된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는 이야기를 읽어서 책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며, 읽어주는 사람이 단어를 바꾸면 원래대로 고쳐줍니다.

옛날이 그리워, 하지만

송 희전(자모회 총무)

싱그러운 바람이 고 끝을 스쳐 기분좋은 파도한 봄의 기운은 어느새 지나가고 작별하는 태양이 불과 지수를 높여 짜증나게 만드느 여름이 왔다. 유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지난 해 9월 땀별이를 하기 위해 어깨동무와 연연을 맺고 직장 생활을 한 지 이제 일년이 되어간다. 비살난 지민이는 이전 제법 어린이집 생활에서 고장에 독하게 된 것 같다.

결혼전 부모님 밑에서 엄마가 해 주는 밥먹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꽤 힘들었는데 아젠 이중 삼중으로 집안 일에 직장 일까지 해버려서 옛날이 그리워 질 때도 있다.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과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참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늘 곁에 있어 주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이 엄마 아빠를 우리 지민이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낳 시간에 주지 못하는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 어깨동무 선생님들이 듬뿍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일터로 발걸음을 돌린다.

5단계 : 글자란 말이 서로 관련이 있고 이것을 서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책에 있는 글자란 말을 짝지어 시도하고 책의 어디에 00가 쓰여 있냐고 묻거나 000는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6단계 : 아이가 단어는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는 말과 글자를 짝짓고, 손가락으로 단어를 정확히 짚으며 읽기 시작합니다.

7단계 : 이제 아이가 유창하게 읽게 됩니다.

- 그러면 읽기지도 어떻게 할까요 -

아이의 성장이 발달 단계를 밟는 과정이라 할때, 읽기는 정확히 아이의 준비상태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 아이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적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의 욕심때문에 아이가 속상하고 주눅들지 않도록 자유롭게 압박없이 읽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① 읽기 준비도는 표현력, 듣기능력, 말의 이해도, 눈과 손의 협응력과 같은 기술이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아이 스스로 읽기를 하려는 욕구가 일도록 주위의 자극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읽기 자체보다는 "아침 바람 찬바람에---"와 같은 말로 하는 놀이, 주사위를 사용하는 놀이 등 각종 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집에 있는 물건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좋겠지요.
- ③ 책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책을 골라 볼 수 있으면 책과 글씨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과 본 내용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고, 모든 책을 다 꺼내 놓을 것이 아니라 10권 정도씩 1~2달 간격으로 바꿔 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우리 아이들 나이에선 그림자체가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 할수 있고 글자가 너무 많지 않고,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 책이 좋습니다.

- 쓰기 발달 -

- ① 처음 아이가 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글자를 위한 선과 그림을 위한 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글자가 수평으로, 일직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② 얼마후 아이들은 쓰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 (하나 하나의 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글자를 다 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 ③ 아이들이 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직선이나 곡선이나, 달혀있냐(0) 열려있냐(C) 하는 것들이죠.
- ④ 아이들은 위의 특징들로 머루어 글자란 비슷한 모양들을 그려냅니다.
- 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글자의 모양을 완전히 인식하고, 각 글자는 유일한 것이며 책은 이런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좋은 아버지 20계명

(1995년 2월 자 한겨레신문)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최근 '좋은 아버지 20계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 우리 아이들 연령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 소리새 마당에 소개해 본다.

1. 자녀가 자기 의견을 스스럼없이 조리있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준다.
2. 자녀의 인격과 결정권을 존중해준다.
3.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대화를 함께 나눈다.
4. 공부하라는 말은 적게하고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인다.
5. 자녀와 함께 책방에 자주 가본다
6. 자녀와 여행이나 견학, 독서를 함께하거나 집안 일을 같이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7. 식사할 때 자녀와 대화하면서 식탁예절을 지도한다.
8. 아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9. 똑같은 일로 두번 야단치지 않는다.
10. 자녀 앞에서 남을 홍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한다.
11.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않는다.

12. 집안의 힘든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준다.
13. 휴일은 박물관 견학, 가재도구 손질 등으로 다양하게 보낸다.
14. 자녀에게 자신의 일기장 등을 잘 보관하도록 일깨우고, 가능하면 가족박물관을 만든다.
15. 자녀가 잘못했어도 손으로 때리지 말라. 꼭 필요할 때에 한해 벌을 세우거나 회초리를 든다.
16. 가훈을 정하거나 개성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창조적 놀이의 개발을 통해 집안의 문화적 기풍을 만든다.
17.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한다.
18. 작은물건도 아껴쓰고 재활용하도록 지도한다.
19. 자녀 앞에서 외제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20. 자녀 앞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지않는다.



'자녀 성교육' 강좌를 듣고 나서

김미희 (청호초 어머니)

아이들 데릴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선생님을 통해
자모회에서 '자녀 성교육' 강좌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직업이 성부인과 간호사인 만큼 선생에
대해서 할만큼 안다고 자부하지만 내 자식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나 생각하면 망망 했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써서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하러 오신 선생님께 구경에서와 나와
마찬가지로 성부인과 간호사 출신이었다.

선생님은 이웃집 아줌마같이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생을 가르칠
것인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다.

이 선생님 강의의 주된 내용은 사랑과 생명이
빠지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선생을 결단 우리
사회의 병든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선생의식을 갖게 할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책략의 선생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강의를 받고 나서 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동안 접했었던 것들이 물리치는 듯했다.

여러치 많은 상황임에도 이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자모회 임원님과 어깨등무에 감사드리고 싶다.

다음번 교육에는 이번 교육 때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 하셔서 많은 것들을 함께 얻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슈퍼 우먼 여재문씨 댁을 찾아서

정리: 고 성순 (편집부장)

1995년 6월 26일 오후 6시 처음 가는 가정 탐방이라
조금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동기·동현이비 집 문을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빠른 어프로치 우리들을 맞이하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손엔
벌써 수박과 빵이 들려 있었다. 동기 어머니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보다 2배 3배는 빨랐다. 아마도 가족의 초가 여느
집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유일한 쌍둥이인 동기·동현이비는 위로 누나가
뱃이 있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 해서 아홉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맛있는 수박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이야기의 화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재문씨 (동기·
동현이 어머니) 가정의 찬쟁 이야기로 옮겨 가고 있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 동기 어머니가 다니시던 직장엔
우연히 들르게 된 동기 아버지께서 여재문씨를 보시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한다. 동기 아버지 문병천씨는 1살 이후부터
두 팔동반 전철역 앞에서 퇴근하는 여재문씨에게 팔없이
전철표를 건네 주었다고 한다. 이 정성에 감동한 여재문씨는

1후 1번어의 뜨거운 편에 끝에 마침내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 후 3년 동산은 남편 문병천씨가 군에 입대하여
구말 부부로 지냈는데 이 때가 동기 어머니는 편애받는 것 같아
좋았다고 하신다.

아빠가 제대하고 제대도인 신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후,
동기 어머니는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담감을 산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부담감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동기 어머니는 이 때 넷 딸을 주룩룩 낳고 난 후였다고 한다.
팔팔이 엄마의 사랑을 톡톡히 맛보신 여재문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도 아닌 아들 둘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재문씨와 문병천
씨는 슬하에 6남매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가끔씩 듣는 요즘 시대의 조그만 별난 가정의 이야기였지만
마주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웃음이 시큰 하였다.

동기 어머니께서는 이야기 하시는 동안 조그만 힘들어 하시거나
지친 표정을 보이지 않으셨다. 때 식구를 돌보시는 만큼이나
광광하고 힘차 보이셨다.

조그만 정신없는 소리새의 첫 가정 탐방이었으나 되돌아
나오는 편집부원들의 발걸음은 왠지 가벼웠다.



여름에 잘 걸리는 식중독

김 철 환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질병을 들라고 한다면 식중독을 들 수 있다.

식중독이란 음식물이 세균이나 독성화학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독성이 있을때 발생하는 병이다.

보통 어떤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설사,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복통 등을 호소하면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식중독은 대개 세균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었을 때에 일어난다. 세균의 독소가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세균이 장내에서 번식하여 생길 수도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대장균 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특별한 대장균을 비롯하여, 포도상구균,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예시니아, 캄필로박터 등 수십 종이 있다.

이 균중에서 증상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은 포도상구균이다. 포도상구균이 만든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1~6시간 사이에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이때는 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포도상구균독소는 음식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음식을 끓여 먹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이 균은 **손에 상처가 난 후 염증이 생겼을때 잘 번식하기 때문에 상처난 손이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식중독에는 장티푸스, 살모넬라 식중독, 점액과 혈액이 섞인 대변이 나오는

식중독은 1주일내에 저절로 낫지만
식중독으로 인한 심한 탈수는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어.
후진국 어린이 주요 사망요인이 바로 식중독.

특이한 질환인 이질, 약수터 물로 전파되는 예시니아 등이 있다. 물론 콜레라도 있지만 콜레라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희귀한 병이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식중독은 균의 종류나 사람의 상태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짧으면 하루, 오래가면 1주일내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식중독으로 인한 탈수가 문제가 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어릴수록 신체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과 전해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쉽게 탈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심한 탈수는 쇼크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증상이다. 후진국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바로 식중독인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이가 2시간이 멀다하고 설사를 한다면 누구나 병원에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설사는 하루 2~3번 하고, 먹는 것도 그런대로 잘 먹고, 또 많이 아픈 것 같지도 않다면 이때는 병원에 갈 것인지, 혹은 집에서 치료할 것인지 애매할 것이다. 물론 가족주치의로 알고 지내는 의사가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전화로도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주치의가 있는 사람은 몇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탈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좋다. 다음에 해당되면 빨리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설명하는 탈수의 치료법을 이용하라.

평상시 아이의 체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설사하는 아이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탈수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평상시 체중의 3% 체중감소를 경중의 탈수, 6%의 탈수를 중중도의 체중감소, 그리고 9%이상을 중중의 탈수라고 한다. 6%이상의 체중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하고, 입원을 요할 때가 많다.

이외에 심한 탈수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입술과 입안, 그리고 눈의 점막이 현저하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
-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거나 얼룩져 보이는 상태
- 최근 12시간 이상 소변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
- 아이가 흥분이 되어 있거나, 자꾸 졸리는 등 의식에 문제가 있는 상태

위의 탈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빨리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1주일 이상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가벼운 설사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아이를 돌보면 된다.

우선 밥이나 우유, 과자 등의 음식물은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주어서는 안된다. 설사 초기에 평소 먹던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힘이 없을까봐, 설사를 하는데도 계속 먹던 것을 주는 것은 설사를 오래 끌어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대신 설사를 치료하는 용액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설사를 치료하는 용액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들면 된다.

(끓인 물 1L + 설탕 1숟갈 + 소금 3/4 찻숟갈 + 주스 1컵)

이 정도면 훌륭한 '먹는 링게르'가 될 수 있다. 설사할 때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고, 링게르를 맞는 것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먹는 링게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 많이 나와 있는 이온음료도 가벼운 탈수에는 좋은 음료이다. 이온 음료의 뚜껑을 열고 실온에서 30분이 지난 후 자주 먹이면 된다.

설사를 한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건강상식이다. 설사는 심하지 않지만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맛있는 죽을 먹이는 것이 좋다. 이때 밥, 우유, 빵, 과일, 치즈, 등의 음식을 설사가 좋아질 때까지 먹이지 말아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항상 끓인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약수물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예시니아라는 균은 찬 약수에서 잘 자라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의 냄새나 맛, 그리고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말고 꼭 버려야 할 것이다. 냉장고를 이용하여 냉장보관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예쁜 조카들이 생겼어요

김은아 (홍익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2년)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홍익 대학교 내의 사회분과 동아리 중 하나인 영원한 미소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렇게 소리새를 통해 여러 부모님들께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 영원한 미소회는 1980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동안 선배님들은 인천의 농아학교, 국립 맹아학교, 엠마우스 근로 여성회관, 가양동 재가 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깨동무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2년동안 활동했던 재가 복지센터 활동을 내부 사정상 정리하면서 타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통해 활동할 곳을 알아 보던 중 어깨동무와 연이 닿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팀을 짜서 4~5명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어깨동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어깨동무의 문을 들어서면 정각 4시. 저희들은 이 때부터 7시까지 어깨동무의 꼬마 악동들과 부대끼며 하루의 활동을 마칩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간혹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담들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한 지난 5월 30일의 모임에서 저희들은 그 동안의 활동들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깨동무와의 인연으로 생긴 예쁜 조카들과의 만남을 저희들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볼 것을 부모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어깨동무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을 잘 지켜보아 주세요.

알을 품은 여우

이사미 이쿠요 글, 그림 / 한림 출판사 / 5,500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아주 큰 알을 발견한 여우는 알에서 나오는 아기새를 잡아먹기로 하고 알을 품는다. 산 속 다람쥐와 새들은 어쩔 수 없어 걱정만 하고, 족제비와 오소리는 밤에 알을 훔치러 왔다가 여우에는 혼쫓이 나서 도망을 간다. 며칠이 지나 아기새는 알을 깨고 얼굴을 내밀고, 그새 정이 들어버린 여우는 아기새의 엄마(?)가 된다.

욕심많은 웅크린 여우가 먹기 위해 품고, 뺏기지 않기 위해 지키는 동안 정이 흠뻑 들어버린다는 내용이, 여우 콧잔등에 앉은 아기새와, 아기새를 걱정하던 새들과 다람쥐들의 기뻐하는 마지막 장면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기새를 걱정하는 새와 다람쥐의 모습은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 하다.

그림만 보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낮과 밤을 잘 표현한 색채와 수채화 그림이 잔잔한 글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글의 양이 많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큰 아이들에게 절절한 그림책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짧게 읽어주면 좋겠다. (4,5세 이상)



신나는 페인트칠

글, 그림 H.A. 레이 / 이선아 옮김 / 네버랜드 / 5,000

어느날 호기심 많은 개구장이 원숭이 조지는 몰래 동물원을 빠져나옵니다. 마냥 신기한 세상 구경을 하던 끝에 원숭이 조지는 유리창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참고 창을 닦던 조지는, 어느 방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아저씨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호기심이 발동한 조지, 아저씨들이 나간 사이 그 방에 들어가 페인트칠을 해서 온통 정글숲을 만들어버립니다. 나갔다가 방에 돌아온 아저씨들을 피해 조지는 도망가다 건물에서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일로 조지의 친구인 노란 모자 아저씨를 만나게 돼서 영화에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세권의 시리즈물 중 하나인 이 그림책은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만화풍의 간결한 그림에는 여기저기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지만 미워할 수 없는 원숭이 조지의 모습은 개구장이 어린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본다면 정말 신나할 것입니다.



책 크기 209×270mm 면수 64면 3.56면 본문종이/모조지 150g
재본 하드커버 값 각권 5,000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한 상 의 (이원정 어머니)

꽤 시간이 가까와 지면 늘 그랬듯이 그 날도 윤정이를 생각했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을까? 또 울며 놀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있지는 않았을까?”

온갖 걱정을 줄여지고 아이를 만나러 어깨등무에 갔다.
 걱정이 지나친 탓이었을까? 윤정이의 얼굴은 벽에 부딪쳐 넘어진 것처럼 땅이 들고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윤정이 얼굴이 왜 이래요?”

“예 윤정이가 신체 활동실에서 우는 걸 보고 새로운 아이가 달려다가 달려도 우리가 그만 손을 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몸을 바를 볼라 하시며 말씀 하셨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무슨 질문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무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바보같이 울기만 하니까 친구들이 몰고 떠나는 거야”

윤정이를 타이르듯 책망하며 나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

이 없었다. 또 자꾸만 쏟아지는 눈물도 어쩔수가 없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그만 안전 사고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다니는 것이었다. 윤정이가 너무 잘 울고 사회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생각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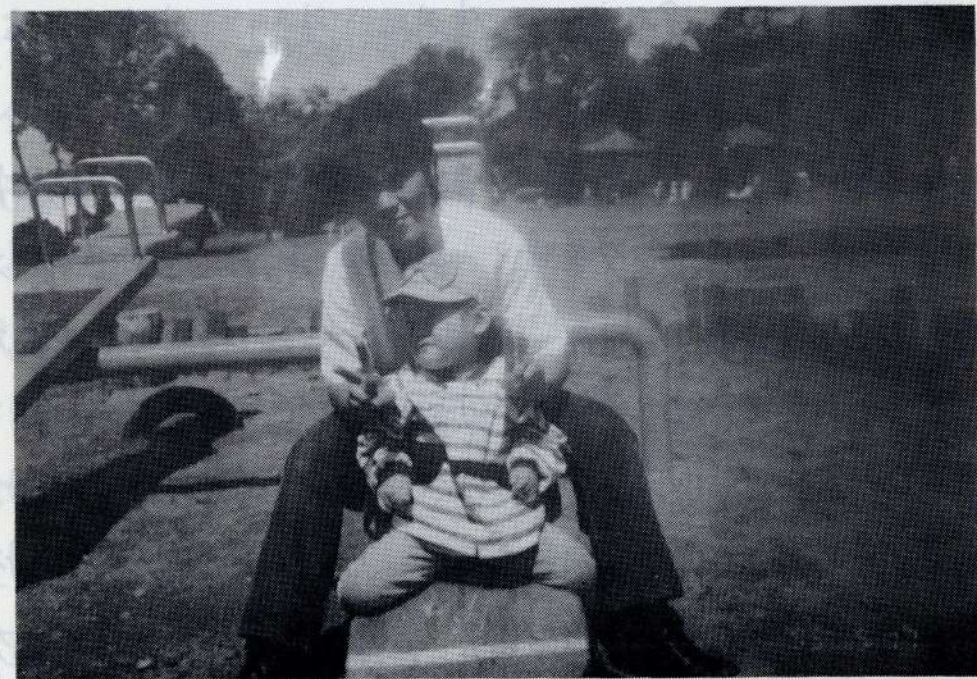
시퍼렇게 멍든 윤정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자니 아이의 얼굴이 그 지경이 되도록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화가 나기도 했고, 또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다음날 나는 세도모신 원장님을 만나뵙고 눈물만 콧물만으로 사고의 전말과 앞으로의 바깥을 힘들게 힘들게 이야기했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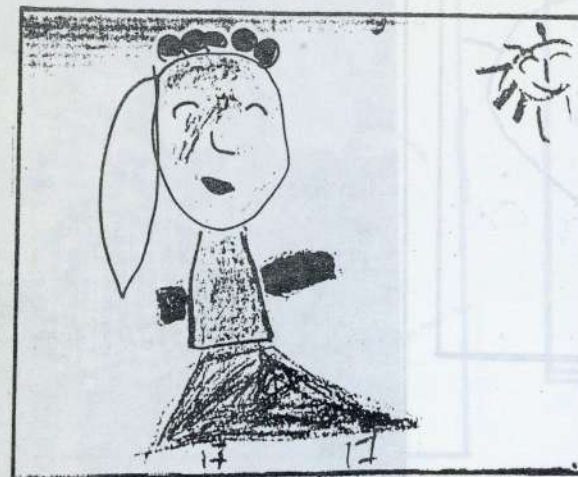
며칠이 지나자 윤정이의 상처는 아물고 약간의 흔적만 남았다. 그 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화도 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아무런 댓가나 조건없이 자식에게 사랑을 그저 주고만 싶고 아무 말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 그렇기에 내 아이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의 수고나 정성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다가 보다. 그때 윤정이의 얼굴을 보며 선생님들께 저절로 서운했던 나의 마음 또한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날 나의 이야기 들려주신 원장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강아 드리고 숲자. 부디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어깨등무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 !



우리들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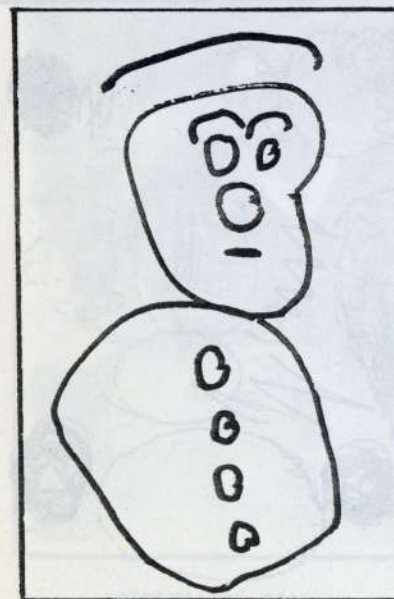


권지담(6세, 여)
“해가 떴는데 어딜 가세요
나는 어린이집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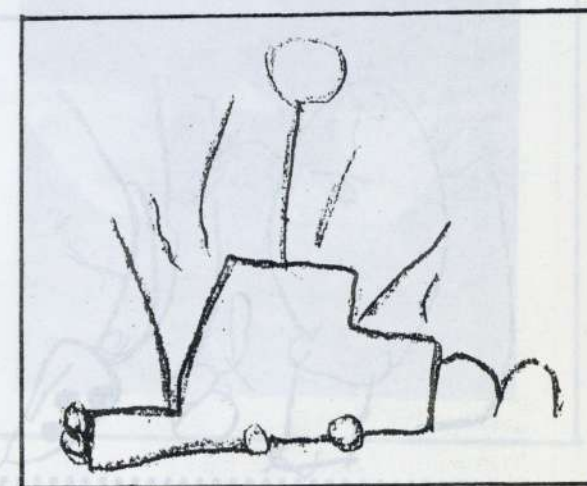


김유식(6세, 남)
“저를 아시는 분은 이 그림이
누굴 닮았는지 금방 아실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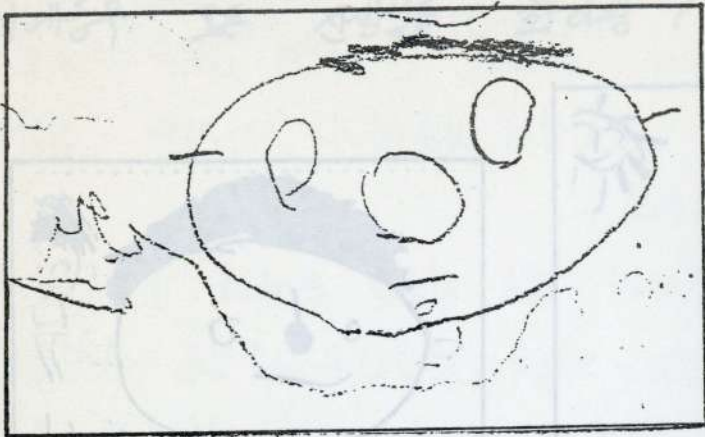
<기린>



김아름(5세, 여)
“스노우맨” 비디오를 봤어요.
춤지 않으세요?



문동기(5세, 남)
“저의 멋진 자동차에 태워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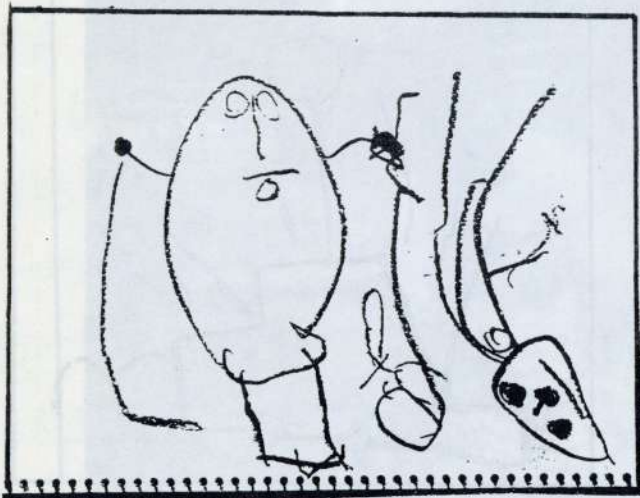


한지수(5세, 여)
아침마다 현규와 저를 챙겨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멋쟁이 우리 아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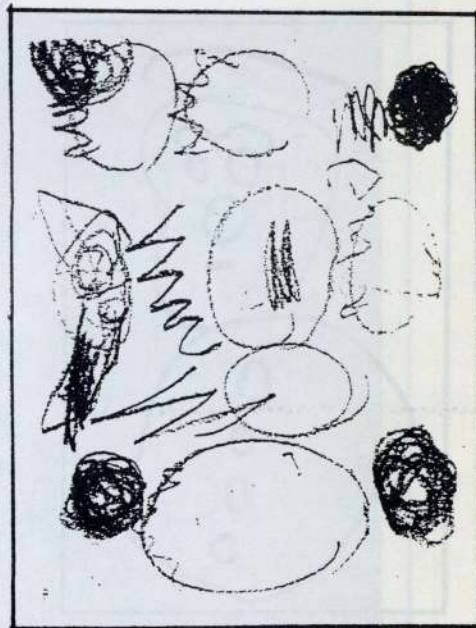


점별해(5세, 여)
'바람이 불어야 할텐데...'
어디 가야 나의 이 바람개비가
멋지게 돌아갈까?

<돌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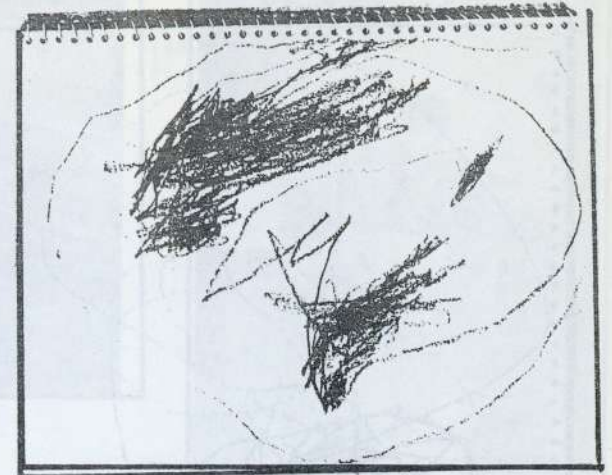
홍영기(5세, 남)
사람인것 같기도 하고 벌레
인것 같기도 한 내 그림.
'내가 봐도 알 송 달 송 ??'



정종영(5세, 남)
"불났어요! 불났어요!"
"소방차가 지나가게 비켜주세요"



임수정(4세, 여)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수정이가 춤을추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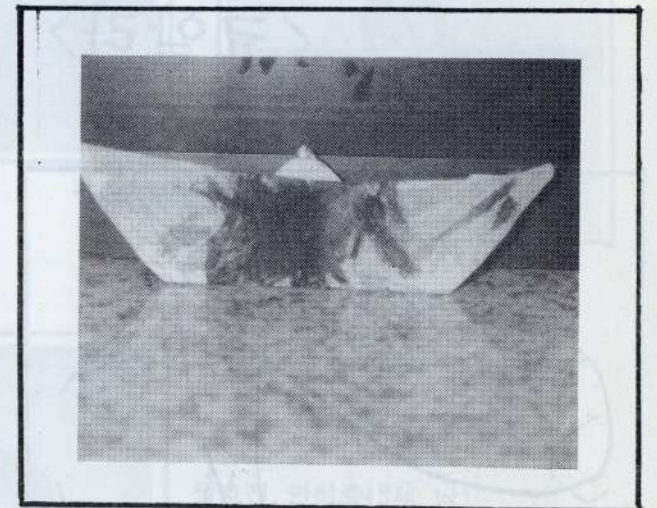


박기영(4세, 남)
바깥 나들이 가서 본 커다란
은행나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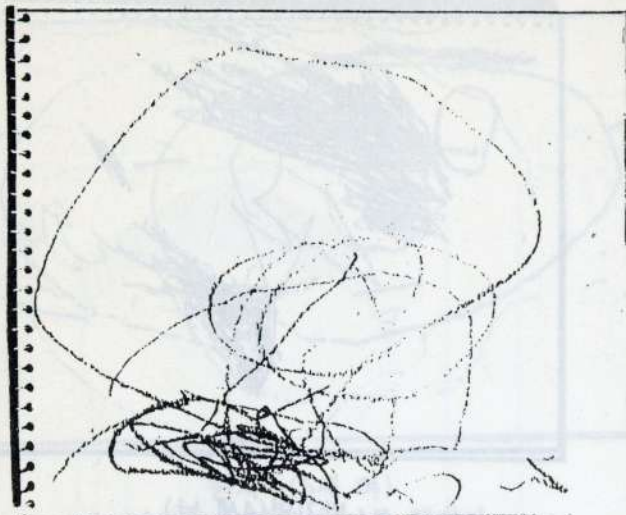
<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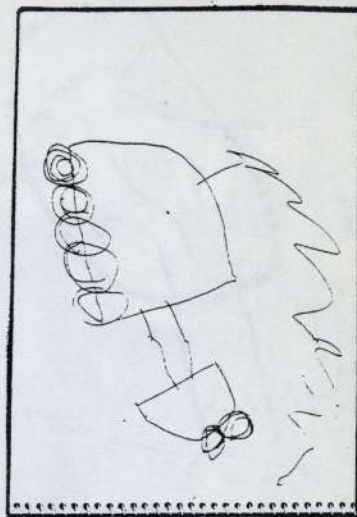
이민정(4세, 여)
"제가 들고 있는게 뭔지 아세요?
우산이에요. 제가 너무 큰건지 우산이
너무 작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중호(4세, 남)
종이배를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근사하게 색칠 했어요.
"어휴! 그런데 사진이 흑백이라
안 나왔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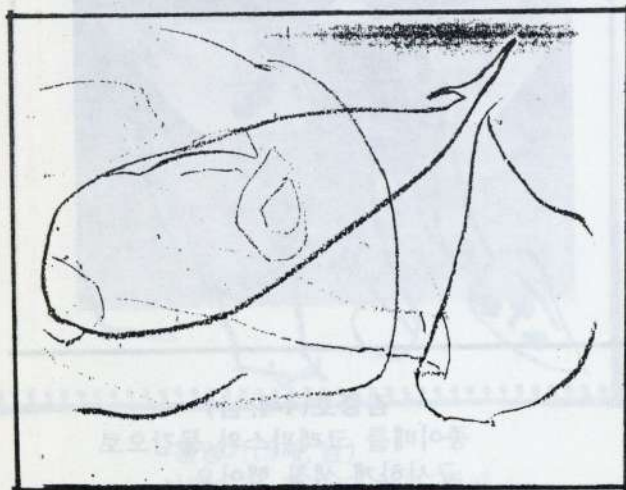
박성현(3세, 2월생, 남)



김태훈(4세, 남)

“우리들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건지 묻지 마세요.
우린 그럴때 제일 괴로워요”

<코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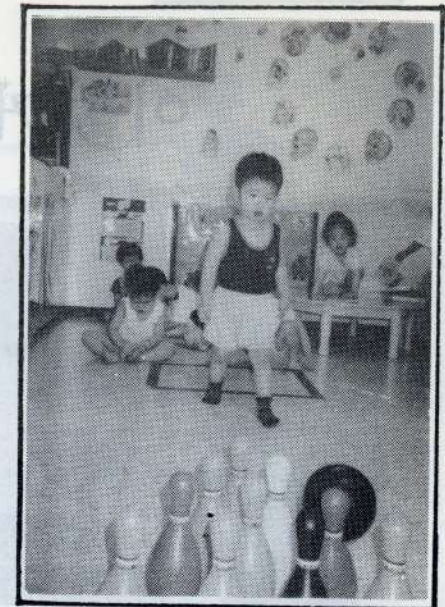
김다윤(3세, 2월생, 여)



이윤정(4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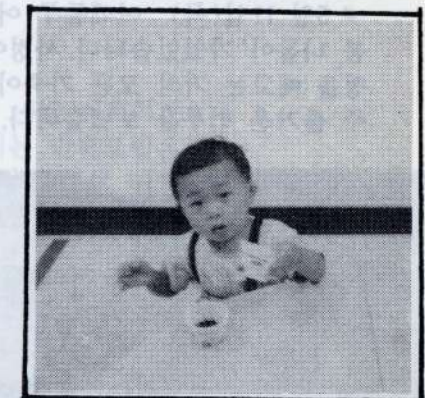
김종현(3세, 남)
“블럭으로 튼튼한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송상민(3세, 남)
공이 볼링핀 앞에서
그만 서버렸네요
“아이구 속상해”



정다은(3세, 여)
아직은 뾰든 입으로
들어가네요
어찌죠?



박복일(3세, 남)
콩 쏟아붓기 중이에요
“선생님! 저 안흘렸어요”



정호진, 안성주(3세, 남)
심각한 이 두남자!
뭐하고 있냐구요?
???

<다람쥐>

이렇게 지냈어요



4월 13일(목) 7시에 '올바른 자녀의 성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홍보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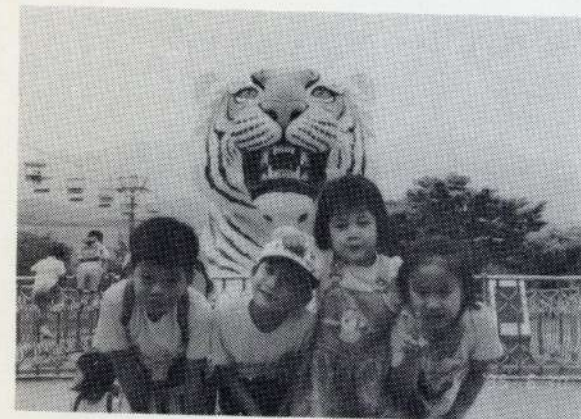
5월 11일(목)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첫 '봄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는 몇 가정을 빼고는 거의 모든 가족이 참여하여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6월 17일(토) 2시에 코알라반 임미선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선생님의 모습은 동화속에 나오는 공주님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기린반과 돌고래반이 마을버스를 타고 멀리 우성아파트 놀이터까지 바깥놀이를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루 빨리 영1동에 생겨나길 바랍니다.



6월 30일(금) 돌고래반과 기린반이 과천 대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동물교실'에 다녀왔습니다. 거북이를 만져보고, 염소에 당근도 먹여주고, 거위, 오리알도 찾고, 손으로 새에게 모이도 주었습니다.

6월 9일(금) 6시 30분에 6월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6월 자모회에서는 반별모임을 통해 반 담임 선생님과 아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11, 12일. 이틀간 '어깨동무 아이 사랑 여름캠프'가 있었습니다. 하마, 돌고래, 기린반의 30명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곁을 떠나 보았던 이번 캠프는 아이들이 자연과 우리와 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현장학습의 기회였습니다.

기린반의 최문정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7월 한달간 병가(휴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최 선생님 대신 수고하시는 조선경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행일: 1995년 7월 21일

발행처: 어/깨/동/무/어/린/이/집

서울시 영등포구 영1동 618-42

전화: 833-7326

편집위원: 고성순, 이석자, 서은희

도움주신 분: 전정애